

한국 교회와 개혁 신앙

홍 치 모
(총신 대학 교수)

머 리 말

한국 교회와 개혁 신학(改革神學)을 논함에 있어서 우선 몇 가지 전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라고 할 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통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한국 교회 중에서도 장로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혁 신학'이라는 말은 개혁 교회(Reformed Church)와 장로 교회(Presbyterian Church)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감리교나 성결교, 심지어 침례 교회까지 포함해서 장로 교회와 같은 고유한 체계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 교파의 창시자들은 본래 신학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로 교회나 개혁 교회의 창시자인 존 칼빈과 같은 신학적 체계를 개혁 교회의 신학 이론이나 방법을 빌려서 그들 나름대로 신학적 체계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혁 신학'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장로 교회와 개혁 교회가 역사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신학의 고유한 명칭인 동시에 대명

사로 불리우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한국 장로 교회가 개혁 신학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실 상부하게 개혁 신학을 존중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선 우리 장로 교회의 신학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신학과 교회의 현주소를 정검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를 하는 이유는 곧 신학은 교회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I

한국 장로 교회는 19세기 말 한국을 찾아온 네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즉 미국 북장로 교회를 선두로 미국 남장로 교회, 캐나다 장로 교회, 호주 장로 교회에서 각각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선교 협의체를 만든 후 지역을 분담하여 선교에 착수했다. 이들은 한국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전

해를 같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상륙한 초기 선교사들이 어떤 유형의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 하배 교수가 쓴 논문¹⁾에 의하면, 1893년에서 1901년 사이에 미국 북장로교 출신으로 우리 나라에 입국하여 활동했던 선교사가 약 40명이었는데 그중에 16명이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이었고, 11명은 시카고의 매코믹 신학교 출신이었다.²⁾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프린스턴 신학을 대변하고 있던 신학자는 A. A. Hodge(1823-1886)와 B. B. Warfield(1851-1921)였다. 이들은 칼빈주의 신학자들로서 학생들에게 영적 감화와 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래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는 미국 장로교 역사상 구파(Old School)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므로 교리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엄격하였고 비타협적이었다. 심지어 열광적인 부흥 운동에 대해서도 비교적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미국 장로 교회에서 구파(舊派)와 신파(New School)의 대두와 대립, 그리고 분열과 재연합의 역사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선 정 성천 박사는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은 구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고 일방적인 해석을 한 일이 있었고, 반면

에 한 철하 박사는 신파에 속한 사람들로 보았는데 두 분의 견해는 모두 옳지 못하다. 미국 북장로 교회는 1870년을 계기로 구파와 신파가 다시 합쳤으므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양측의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파는 에큐메니칼적인 동시에 부흥적이었으며, 미국에 있어서 애국심이 남보다 강했던 사람들이었다.³⁾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적,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어떤 신앙과 신학을 우리들에게 전수하였는가.

II

최근 한국 교회 내의 일부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보다 자유롭고 폭이 넓은 신앙과 신학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지 않았던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특수성과 단일회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극동에 온 선교사들 가운데 하필이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들만 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러면 이들의 신앙 형태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당시 미국 외지 선교회

1) Harvie M. Conn,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Part I, p. 28 in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November, 1966)

2) 전 성천, *Schism and Unity in the Protestant Church of Korea* (한국 기독교 서회, 한 철화, "保守主義神學의 어제와 오늘" (기독교 사상, 1970年 7月號))

총무였던 브라운(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한국 선교의 처음 25년간의 전형적인 선교사는 퓨리탄형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한 세기 전에 뉴잉글랜드에서 지키던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춤이나 담배나 화투치는 것은 죄라고 보았다. 신학은 보수주의여서 성서에 대한 고등 비판이나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으로 생각했다.”³⁾

선교사들의 대다수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수업하였으나 그들이 대학과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1870년에서 1900년까지 약 30년간은 무디(Moody) 선생이 전미국을 부흥 운동으로 휩쓸던 기간이었으므로 소박하고 단순한 복음적 신앙과 구원의 체험을 통한 감격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던 때였다. 구원의 감격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선교지에 부임하였으니 만큼 그들의 신앙이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색채를 띠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들의 신앙이 이처럼 단순하고 보수적 근본주의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게 한 것은 12신조였다. 이 신조는 간략하게 그리스도 교

회의 기본 교리를 요약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살고 있던 상황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 생활에 관한 부분이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보아 맞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예를 들면, 예정론(豫定論)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주석을 붙이는 일과 유아 세례에 관한 사변적인 설명이었다. 그리고 결여되어 있던 성령에 관한 조항을 보충하고 선교에 관한 조항을 새로 삽입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새로 탄생하는 한국이라는 선교 교회가 직면해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교리를 비교적 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12신조(信條)를 한국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게 했던 것이다.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회는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개혁 신앙을 표방하는 장로 교회라고 하며, 신앙 고백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또한 일단 작성한 신앙 고백서는 단지 문서로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개혁되며 새로와져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개혁 신앙적인 입장에서 분석,

3) A.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1919), p. 540. 柳東植, 琴章泰, 韓國宗教思想史, II, 연세 대학 출판부, 1986), p. 218.

검토하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신앙 고백서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 장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본 진리에 관한 신앙 고백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생활과의 관련에서 언급하는 신앙 고백은 없이 지내왔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 기독교 윤리 부재를 말하는 것을 흔히 듣고 있지 않은가. 윤리에 대한 신앙 고백, 즉 윤리에 대한 신앙적인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한국 교회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숙고하여 고백할 만한 기회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하였다. 더구나 식민지하에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930년대 신학적인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 세대주의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고 설상가상으로 신비주의 운동까지 대두하여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칼빈주의적 신학과 고백을 갖기란 더욱 어려웠다. 당시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요지부동하게 지켜 오고 있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한국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옹호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

게 대립적 현상을 보이다가 신사 참배라는 일대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기독교 신문」은 한국의 신학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조선 신학의 보수진을 지키고 있는 분은 장로교 신학교의 박 형룡 박사과 감리교 신학교의 변 홍규 박사이다. 이 두 분은 다 성서의 문자적 영감과 문자적 석의(釋義)를 고집한다. 박 박사는 직업적 칼빈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소위 미국 근본주의의 대언자이고, 변 박사는 경건한 주지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통을 고수한다.

「신앙은 보수로 신학은 신진」이라고 할 만한 신학자로서는 경남의 윤 인구, 연전(연세 대학교)의 갈 홍기, 이전(이화 여자 대학교)의 김 영의, 부산진의 송 창근, 간도(間島)의 김 재준 등이 있다.”⁴⁾

III

한국 교회에서 개혁 신학의 수립을 위해서 최초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신학자는 박 형룡 박사이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박 형룡 박사의 신학을 가리켜 무조건 근본주의 신학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4) 基督教新聞, 제20호, 1938. 금 장태, 유동식, 한국 종교 사상사(1986), p. 240.

무지에서 오는 그릇된 판단이다. 본래 근본주의 신학과 칼빈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신학 연구 방법에 있어서나 성경 해석과 종말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관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근본주의자들 가운데는 세대주의자들과 오순절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은 일단 구별해서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무조건 동일시하는 오류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

1927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박 형룡 박사는 다음해 1928년 4월부터 평양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여 1931년 4월, 평양 신학교의 교수로 취임하여 변증학, 신학 난제(현대 신학 사조),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하게 되었다. 1931년 4월은 정암(正岩) 박윤선(朴允善) 박사가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으므로 두 사람 사이는 사제지간이 되었고 장차 한국의 보수 신학을 양 어깨 위에 짊어지고 나갈 숙명적인 동역자가 되었다. 박 형룡 박사가 평양 신학교에 부임하던 1931년부터 1938년까지 한국 교회는 안과 밖에서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것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송 창근, 한 경직, 김 재준 목사는 한국 교회를 관망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한 경

직 목사는 곧 신의주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여 목회자가 되었고, 송 창근 목사는 평양 산정현 교회를 맡아 있었고, 김 재준 목사는 평양 송인 상업 학교에서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평양 신학교 교수였던 남궁 혁 박사는 포용주의자로서 김 재준 목사와 송 창근 목사로 하여금 「神學指南」에 글을 기고하도록 주선하였고 나아가서는 김 재준 목사를 평양 신학교의 교수로 추천하려고 은밀하게 노력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김 재준 목사는 「神學指南」에 글을 게재할 때마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 교회의 보수 일변도의 신앙과 신학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박 형룡 박사는 「神學指南」에 김 재준, 송 창근, 채 필근 등 세 사람의 글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정식으로 제의하였다. 이것은 곧 보수 신학과 자유 신학의 대결로 표면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함경도 성진 중앙 교회의 김 춘배 목사의 여권(女權) 문제와 서울 남대문 교회의 김 영주 목사의 창세기 저작권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목사 이 용도의 신비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한국 교회는 선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대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표준 성경 주석을 간행할 것을 결정했고 그 위원장에 박 형룡 박사를 임명하였다. 1935년 박 형룡 박사

자신은 한국 교회 안에 물밑듯이 스며 들어오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막기 위해서 「神學難題選評」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한국 신학자로서 연구한 최초의 것으로 한국 신학사상(神學史上) 그 의의는 자못 큰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신사 참배 강요는 한국 장로 교회의 개혁 신학의 수립을 결정적으로 저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38년 평양 신학교는 폐교 조치를 당했고, 박 형룡 박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표준 성경 주석 사업만을 간신히 지속하다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그것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1942년부터 1947년 7월까지 만주 신학원과 동북 신학교에서 교수하시다 그해 10월 부산으로 오게 되었다.

IV

1939년부터 1946년까지 8년간 한국 교회는 수난과 혼란 속에 시련을 겪어야 했고 신학 활동은 공백 상태에 빠졌다. 그 어간에 한국 교회 안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조선 신학교의 김 재준 교수를 중심으로 튼튼하게 그 기반을 조성하고 있었다. 한편 시대의 혼란 속에서 한국 교회의 신도들은 근본주의적 세대주의 신앙의 영향하에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오순절 신앙 사상에 감염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유주의와 세대주의 양 사상 중에서 세대주의(世代主義)는 한

국 교회 안에 있어서 신앙의 보수를 지향하는 장로교 목사들에게 폭 넓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에 익숙하게 된 교회 목사들에게는 오히려 개혁 신앙이 생소한 것으로 느낄 정도가 되었으며 동시에 반지성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개혁 신앙의 본질에서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건전한 신학이 교회 안에서 작용하지 못할 때 신앙과 신학의 의식화나 반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교권주의만 팽배하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세대주의적 신앙은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나타내기가 일쑤이다. 주 기절 목사나 한 상동 목사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제에 항거한 것은 올바른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방이 되자 누구보다 애타게 염원했던 것은 평양 신학교의 재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평양에서는 불가능했다. 한 상동 목사가 1946년 봄 월남하여 기도하던 중 서울에 올라와 박 윤선 목사를 모시고 진해(鎭海)에 내려가 신학 공개 강좌를 개설한 것도 하루 속히 개혁 신학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한 상동 목사는 송 상석 목사로 하여금 그때까지 만주에 계시는 박 형룡 박사를 모셔 오도록 했다. 그것은 일대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박 형룡 박사는 1947년 10월 부산 고려 신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박 윤선 목사와 더불어 옛날 평양 신학교의 재

건을 실현하는 듯하였으나 박 형룡 박사가 1948년 봄 서울에 올라오으로써 보수 신학의 힘의 집약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한국 신학사상 하나의 아쉬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1946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의 개혁 신학 수립의 제2단계가 시작되었다. 박 형룡 박사와 박 윤선 박사의 해방 이후의 신학 활동은 한국 신학사상 길이 빛날 것이다. 1978년 박 형룡 박사가 서거한 이후 박 윤선 박사는 10년 더 사시면서 꾸준히 신학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한국의 보수 장로 교회가 현재 얼마만큼 이 두 어른이 이룩한 신학을 그대로 목회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개혁 신학이 문자 그대로 개혁 신앙에 연결되어 있는가, 일선 목회자들은 얼마만큼 개혁 신학을 의식화함으로써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지가 문제이다. 지면 관계로 박 윤선 목사의 신학 활동에 관해서는 유보시킨 채 이 글을 맺는다.

* 표지 설명 겸 개혁 신앙자의 한마디 *

익어 터진 밤송이-탐스런 알밤, 가을-결실-수확의 계절을 느낀다. 아니 개혁 신앙자의 눈에 그것에서 개혁주의의 근본 원리를 읽는다. 개혁주의의 근본 원리와 근본 사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에 있다. 밤의 알숙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이라 한다면, 밤의 여타의 것은 그 알숙을 위해 있듯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만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영위된다는 원리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밤의 알숙의 진미를 우두둑 먹고 즐기려면 가시→껍데기→보늬를 벗겨 버려야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알숙을 드러내고 그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려면 이 알숙을 뒤덮고 방해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가시 돋친 마귀의 도전, 거짓의 껍데기, 이단의 보늬를 다 벗겨 버려야 한다. 16세기의 암흑의 껍데기를 벗긴 종교 개혁과 이후 개혁주의자들의 개혁 운동은 이것을 벗기는 작업이었다. 저 알숙을 드러내기 위해 여타의 반대 세력과 투쟁함이 개혁 운동이요, 이 알숙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는 작업이 개혁 신학이며, 그 신학을 바른 말씀의 체계로 받아들여 신앙함이 개혁 신앙이며, 그 신앙을 실제 생활에 적용(실천)함이 개혁 신앙자들의 생활관이다. - 최 -